

박정순 씨, 고향에 칠순 기념 '은행나무길 조성'

칠순잔치 비용 1700만원 상당 수목 기증

진도군 의신면 송정마을 저수지 주변에 칠순을 기념해 은행나무길을 조성한 진도 향우가 화제이다. 그 주인공은 올해 칠순을 맞은 출향인 박정순씨로, 칠순잔치에 쓸 비용을 고향인 송정마을 저수지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수목을 진도군에 기증했다. 박씨는 칠순잔치 비용 1700만원을 은행나무 90주, 홍가시나무 20주를 구입해 진도군에 기증했고 군은 저수지 주변을 정비해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또한 은행나무길에 금계국을 파

종해 노란빛이 가득한 산책로로 만들었다. 송정마을 저수지 주변은 버드나무 등이 무분별하게 자라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였고 평소에도 고향을 방문해 이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박씨가 칠순을 맞아 진도군에 수목을 기증하게 됐다. 칠순을 맞아 잔치 비용을 고향을 위해 쓰고 싶었다는 박씨는 "마음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며 "가을이 되면 송정저수지 주변이 노란 은행나무 빛깔로 물들어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길 바



진도 의신면 송정마을 저수지 주변에 조성한 은행나무길. /진도군 제공

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선행을 베풀어 주신 박정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포토뉴스



시교육청, 호주 TAFE NSW 관계자와 직업기술교육 교류 협의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호주 뉴시우스웨일즈(NSW)주에서 운영하는 TAFE(국립교육기관)(이하 TAFE NSW)와 직업 기술 교육 교류 협의를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순천대 재직교수 동문회, 의대 성공 유치 기원 발전기금 기탁
국립순천대학교 재직교수 동문회가 지난 16일 '글로벌대학 성공 및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하며 대학발전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동광양농협 '아나바다 장터' 열려...수익금 전액 기부
동광양농협은 하나로마트 대형점 앞에서 이웃사랑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물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기금 및 홀몸어르신 김장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사용될 계획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오월광주 불꽃, 공동체 들불로'...윤상원 기념관 개관

윤상원 열사생가 임곡동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열어



거센 불의에 굳게 맞서 민주주의를 밝힌 시대의 들불,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공동체로 꽃피게 할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윤상원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광주 광산구는 17일 임곡동 천동마을에서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

의 역사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는 열사의 생가가 있는 임곡동 천동마을에 연면적 591㎡, 2층 건물로 세워졌다. 2020년 사업추진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건립을 마쳐 이날 문을 열게 됐다. 센터는 1층 기획전시 공간과 2층 상설전시 공간으로 이뤄졌다. 기획전시 공간은 불의에 저항한 민중 투쟁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지난 2021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윤상원 정신을 알린 '윤상원 일대기 그림'이 열사의 고향으로 돌아와

'남을 위한 행진곡-윤상원 일대기 전(展)'을 주제로 첫 전시를 연다. 광산구와 하성출 작가가 제작한 일대기 그림은 120호 크기의 대작으로, 어린 시절부터 최후 항전의 날 도청에서 산화하기까지 열사의 삶을 그려냈다. 전시는 7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또 1층에는 윤상원 열사 전신상이 설치됐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2층 상설전시 공간은 윤상원 열사의 삶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일기 사본 등을 전시하는 곳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2층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간이 마련됐다.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5·18 교육, 인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점이 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광주교육청, 호남권역 군특성화고 6개교 '합동발대식' 개최

군특학생 17기 '위학헌신 학생본분 다짐'



광주시교육청이 17일 금과공업고, 기능권역 책임학교장 이광중 교장 등 광주·전남·전북 교육계와 국방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특성화고 발대식과 학생 선서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국방부 지정 44개 군 특성화고 중 호남권역 학교 호남권역의 금과공업고, 강호항공고, 남원제일고, 전남미래자동차고, 한국기술부사관고, 한국치즈과학 등 6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 특성화 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이다. 3학년 1년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전문기술병·전문기술 부사관을 선택해 복무하게 된다. /조선주 기자

순천 왕조1동 통장협의회 '복지망원경' 운영

순천시 왕조1동 통장협의회가 '복지망원경'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안부살피기로 복지사각지대 제로 동네 만들기 시행하고 있다. 복지망원경은 지난 2021년부터 왕조1동 통장협의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이다. '망원경'이라는 이름처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를 촘촘히 파악하여 왕조1동 복지담당에게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 갑을 주철현·조계원, 당선 축하 화분 아름다운 가게 기증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수시갑을·을 주철현·조계원 당선인이 당선 축하 화분 100여 개를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여수 생봉점에 17일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선거 후 당선 축하 화분 기증 캠페인을 통해 모은 축하 화분을 판매해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왔다. /광양=조순익 기자

문병란 詩, 초등학생 그림으로 만나다

8월 31일까지 시인 문병란의 집서 기획전 열어



한평생 자유·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했던 저항시인 문병란(1935-2015)의 작품을 초등학생의 그림으로 마주하는 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동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초등학생들이 주인공이 된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기획전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 그림책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발간에 따라 기획된 행사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월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획 프로그램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를 진행했다. 동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그림들을 책으로 한데 엮은 그림책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프로그램에서는 시인의 시 한 편당 4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고, 시 8편에 3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원시 제목은 공개하지 않고 시만 제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완성된 그림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제목을 붙이도록 했다. 개막 후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아 풀어낸 그림과 작품 제목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고 탄성과 흥미를 이끌어내며 충분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주 기자

제30회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박만수·김용섭·최영도·박재홍...지역발전 공헌



왼쪽부터 박만수·김용섭·최영도·박재홍 씨.

서구는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서구민' 4명을 제30회 서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는 ▲사회·봉사 부문 박만수(동천동 보장협의회 위원장) ▲아름다운도시가꾸기 부문 김용섭(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교육·문화·체육 부문 최영도(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지역·경제 부문 박재홍(영무건설 대표이사)씨다. 시상식은 5월 2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오전 10시 '제30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 박만수 동천동 보장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내 돌봄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도시가꾸기 부문 수상자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은 협치마을 네트워크 운영, 상가번영회 활성화, 마을회 폐발, 마을테마길 조성 등을 통해 골목상권 및 마을자치 활성화에 힘써왔다. 교육·문화·체육 부문 수상자 최영도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생활체육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리그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의 기반 구축에 앞장서왔다.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 박재홍 영무건설 대표이사는 지역 내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선주 기자

광양교육청-전남드래곤즈, 업무협약

학생 건강 신체발달·지역 축구발전위해 공동 협력



광양교육지원청은 전남 유일의 프로축구단인 전남드래곤즈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교육지원청과 전남드래곤즈는 광양지역 학생들에게 학생선수 육성, 진로수업, 축구 클리닉, 배식봉사, 네이밍 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계준 광양교육장은 "학교 스포츠는 물론 프로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기량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홍 전남드래곤즈 사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축구 관련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28일 안양과의 광양 홈경기를 '광양교육지원청의 날' 네이밍 데이로 지정, 관내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